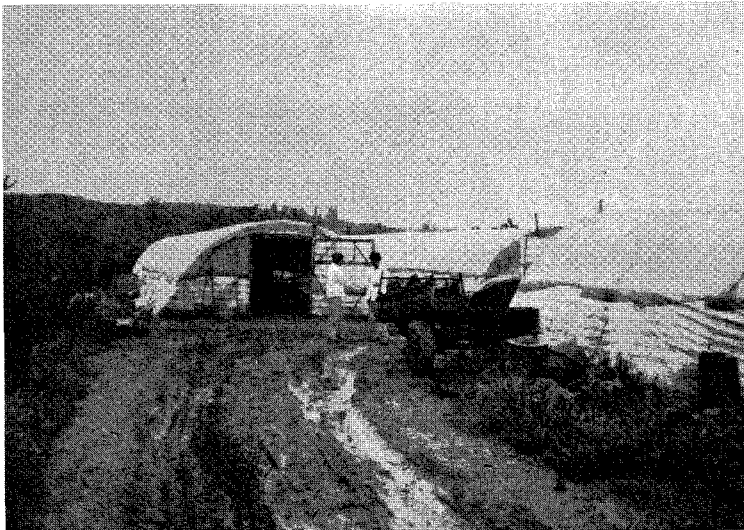


우리의 뿌리

이상구
중부축산

우리 민족은 누구나
농부의 자손이며
흙과 더불어 성장해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업 농부 농민 농촌 농축수산을 현대식 용어로는 제1차산업이라고 한다. 농경시대(자급자족)가 농공 시대로 다시 산업시대로 또다시 첨단과학시대로 가고 있다. 농사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원칙에 순응하는 직종이며 모든 산업의 기초이므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 민족은 누구나 농부의 자손이며 흙과 더불어 성장해 왔다. 언제나 농업이 가장 큰 자연자원이다. 태고적부터 농사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대자연이 제공한 토지위에 각종 동식물을 가꾸고 길러서 섭취함으로써 성장하고 활동하는 원동력이었다. 축산은 농업의 일부분으로 인간이 식물재배과정에서나 섭취과정에서 축산물은 보완적 목적으로 야생을 길들여 사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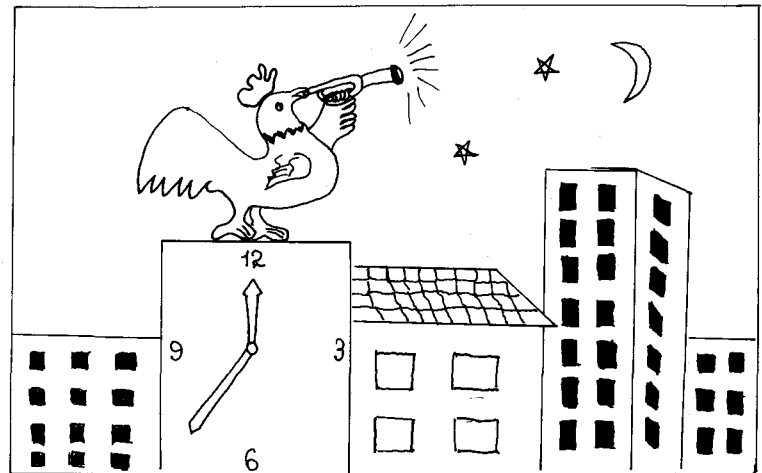
오늘날 축산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생활의 일부분으로 동물성식품섭취라고 단일화 전문화되었지만 최초에는 아니 전체적으로 미발전 시대의 축산은 축종마다 인간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달랐고 이 역할에 따라 축종의 등급이 분명했다. 세상이 무섭게 발전했는데도 그옛날 그 등급은 지금까지도 수대째 상속되어지고 있다. 금메달에 소, 은메달에 돼지, 동메달에 닭이었다. 이러한 등급이 정해지던 당시는 건강한 삶보다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 제일좋은 닭고기 계란은 일종의 사치품 같아서 동메달이 되었다. 금메달인 소는 누우런 한우이다. 우리할아버지의 제일 큰 소원이 엉덩이 잘생긴 암

소한마리 마굿간에 매어두는 것이었다. 이 한우가 재산목록 제1호였고 가장 힘센 농기구였다. 오늘날 고관님들 송아지장관 아닌 분이 있나요. 이 누우런 암소가 낳아준 송아지가 아니었으며 어떻게 무슨 돈으로 공부했습니까? 이 소가 남긴 퇴비가 아니면 어떻게 농사(농작물)를 지었나요.

오늘의 경운기, 자동차 트랙터 역할을 이 소가 다했습니다. 평생을 일해주고 송아지를 생산해주며 마지막 죽을 때는 최고의 영양과 맛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더욱 가상한 것은 인간이 배부르고 흥이나면 소의 가족을 두드리며(복) 즐거워한다. 이렇다고해서 소가 인간에게 일한 댓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인간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도 또 먹이를 가공(요리)해 달라고도 안했다. 스스로 인간이 버린 잡초와 인간이 버린 찌꺼기(쌀겨)를 먹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하고 번식하고 퇴비생산하고 고기까지 제공해주던 소가..... 은메달 돼지는 어떻게 해서 은메달이 되었는가? 돼지는 우리 한민족의 전통유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를 담당해왔다. 우리민족의 뿌리는 "예"였고 예의 표현은 관혼상제였다. 오늘날은 금전만능시대로 관혼상제의 평가가 금액으로 수천만원이니 하지만 옛날에는 관혼상제의 평가가 돼지고기 한조각의 크기로 평가되었으며 큰돼지 한마리면 1명의 아들장가와 딸시집준비는 완료되었으며 돼지고기는 많은 조상의 건강을 지켜왔으면서 먹이는 전부 인간이 먹다남은 찌꺼기로 충분했다. 때문에 소는 할아버지 아버

지가 기르고 돼지는 할머니 어머니가 길렀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인간의 화장실이 곧 돼지우리로 순수히 인분만으로 사육되기도 했다. 오늘날 하수처리장 역할까지 담당해주었던 돼지. 동메달의 닭은 우리에게 어떠한가, 정확한 시간을 제공했고 어떠한 무서운 귀신도 새벽닭 소리에는 혼비백산했다. 혼례상에는 부부닭이 산채로 참석했고 며느리가 새로운 시부모님께 전입신고때 신고식 선물이 닭고기였다(폐백닭).

닭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제공했고, 귀신도 새벽닭 울음소리에는 혼비백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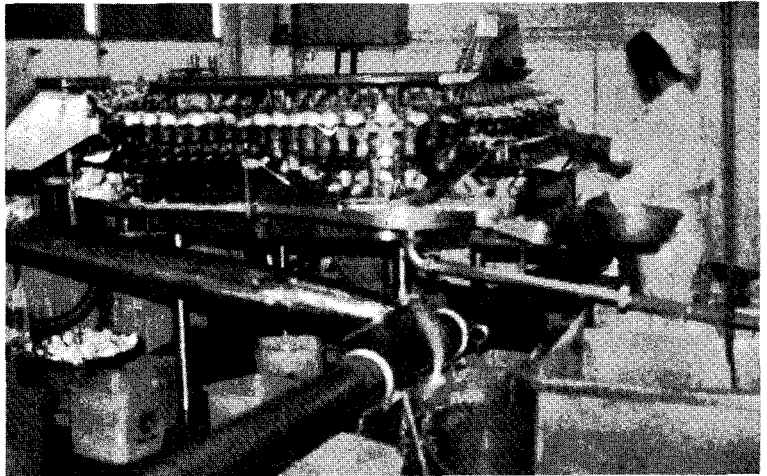


장모님의 사랑의 척도가 씨암탉이었으며 수많은 환자의 회복의 지팡이가 닭고기였으며 소풍 : 수학여행에서 계란은 가장 고급품이며 가장 편의식품이었고 절대 필수음식이었으며 단백질공급의 주원이었다. 소 돼지가 제공하는 퇴비는 농작물에

절대필요했고 닭이 생산하는 퇴비는 발작물에 절대필요했다. 이렇게 중요했던 축산물이 겨우 20여년 사이에 가치는 그만두고 서있는 위치마저 일정치 못하게 전락했다. 4.19혁명 5.16혁명의 회오리바람은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서구풍은 삼시간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불었고 그 영향은 인간의 내면성 깊숙이까지 침투했다. 이 바람은 농경시대인을 산업시대로 유혹하면서 공업화가 도시팽창화로 자본주의를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로 위장되고 소비가 미덕이라면서 부루진, 미니 미니하면서 옷의 변화 아파트 빌라 콘도미니엄하면서 집의 변화, 짜장면 초밥비후스텍싸움이 어느새 일회용 인스턴트하는 음식의 변화는 된장찌개를 쫓아내고 급

기야는 부엌의 존재까지 부정한다. 동양인은 주식이 곡류였고 서양은 주식이 육류였다. 급속한 사회변화는 우리가정에 심한 충을 초래했다. 곡물주식의 기성세대와 육류주식화세대가 부모자식관계로 존재하게 된다. 이와같은 관계상 부작용이 핵

가족제도라 해서 민족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사회적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인간은 잔인해지고 있다. 차기의 욕구충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축종은 이제 축종의 천성까지 무시되고 하나의 인간이 원하는 획일적 상품가치로 통일되었다. 축종과 같이 이용되던 농기구는 민속촌 전시장에서 관광상품이 되었고 화학성비료 때문에 축산물 퇴비는 심한 공해물이 되었다. 배합 사료는 생산되면서 논밭주위는 밀림지역갈고 농촌까지 하수처리장이 필요한 실정에 심지어 풀씨까지 수입해온단다. 죽는날까지 훑힌번 더더보지 못하고 시멘트바닥이나 케이지속에서 절미절수까지 당하는 축종은 이제 대기업가의 기업경영의 주체로 넘어가버렸다. 우둔한 농민은 하루아침에 축종없고 퇴비없고 노동력없고 재산목록없고 길옆에 무성한 잡초 어루만지며 쓰러져가는데,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을 지키는 당신네 부모형제의 저 뼈저린 외침을 왜 듣지 못하는가? 풍랑은 도시의 상공인과 공무원이 일으키고 피해는 농민만 받아야된다. 축종이 농민에게 있을때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지금같이 부채는 없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 자원이 부족하니 자연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자고 하면서 오늘날 엄밀히 따지면 닭포까지 국산품이 아니고 외국산이다.(품종과 사료100%수입) 70%산지에 그 많은 잡초두고 풀씨까지 수입해오고 있다. 인간의 생활원리나 기업경영원리가 동일하다. 인간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고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



우리쪽 협상자들이 농축산물의 생산과정과 소비 유통 등 생산농가의 실정을 너무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도시생활자는 농촌생활자의 반의 노력에도 제반 문화혜택은 80%이상 독차지하는 모순투성이의 농정과 사회적 현실. 농촌은 이제 인간폐품 하치장이 되었다. 부끄럽게도 세계부채 제4위국 이 많은 외국부채를 사용은 전부 도시민이 하고 혜택 역시 도시민이 받으면서 부담은 왜 평등하게 농민까지 부담하는가? 도시민은 한두가지 외제품을 소지하지 않으면 도시의 문화인 대열에서 탈락할 정도로 외제품의 선호도를 지나 미쳐있고 이것까지도 부족해서 위정자들은 우리나라에 너무많아 공해 취급되는 것까지 외국에서 수입해오더니 이제는 김치 간장 전통고유음식물까지 수입해 잡수시는 도시민은 과연 어느민족 그 누구의 자손이며 뿌리가 어디며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보자. 이 좁은 땅에서 지었다하면 동양최대요, 했다하면 세계몇위다, 많은 연구실에서 최첨단기술이 속속 개발된다는 보고, 국제수지가 흑자라는 신문의 대서특필, 보통사람시대라고 온세상이 흥분하고 있다. 이때 농촌고향을 지키던 청년이 장가도 못가고 늘어나는 부채로 유서한장없이 자살까지 했다. 이 좁은 같은 땅에서 같은 자손에게 이같은 극과극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우리의 뱃심.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택과 가족은 있으나 친척과 가정은 없어졌다. 형이 동생에게 최루탄 쏘아대고 동생은 형에게 화염병 던지고 농촌떠난 부모가 자식등살에 며느리 눈치만 보다가 양로원 가고 늙은부모가 땀별에서 모내기하는데 도시에 자식 가족은 에어컨장치된 자가용으로 여름휴가 가고, 몇년전만해도 고부간사이가 최악의 경우 동서독관계 같더니 현재의 관계는 우리의 남북관계같이 악화되고, 부부관계가 편의관계 이용가치관계로 이제는 완전계약관계가 대중화 추세란다. 자

식이 부부간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이용가치 및 증표로 돈과 우유로 제조하고 있다. 초고속시대에서 최첨단 과학기술로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고단위 영양편의 식품섭취와 계절까지 초월한 멋지다는 생활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불신하여 감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불신하여 미행까지 하면서 얻은 자식이 상속 및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 손수 토막까지 내고 태연히 매장하는 인정. 도시중앙도로에는 종종 맹수수송차 같은 쇠창살 뼈스가 지나간다. 그속에는 전정이란 청년이 실려있다. 이런 것을 누가 상대성 원리라고 했지 순하다 순환 오씨가 자기발에 양계장(비닐하우스)두동짓는데, 행정관서에서 짓지못하게해서 낙심하고 있다. 이때 배달소년이 석간을 던지고 간다. 새마을 본부에서 수백만평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무허가로 수만평건물을 지었다. 이 돈 역시 구멍가게의 세금과 닭똥 세금까지 받아간 세금으로..... 농산물 수입입력이 대단하다.

도대체 품종수입해주고 사료원료



**우리쪽 협상자들이
농축산물의 생산과정과
소비유통의 실정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수입해주는데 이제 산물까지 수입 하려면 어불성설도 분수가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쪽 협상자들이 농축산물의 생산과정과 소비유통 등 농축산물 생산업자의 실정을 너무도

모르는데 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이 정상이다. 태어난후 단한번도 생산현장을 보지못했고 실제생산자와 대화한번 해보지 않은 이 방면에는 완전 외계인들이니까? 쌀나무라고 하고 1년미국유학하고나면 혀가 외국발음만 나오시는 분네들이니 생각하며 할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후세대가 6.25동란의 참상과 공산도매의 잔악성을 KAL858폭발을 보고도 국내조작극이니하고 다니는 세대가 위정층이 되면 이 농축산업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새 병아리 실은 차가 문밖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신경쓴다고 첫물줄 때 탈지분유까지 타서 줄 작정이었으니 이만쓰고 병아리장으로 간다.

